

늘 가난만 비벼대는 강마른 목사님이
건물 지하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월세 걱정을 하고, 주변 눈빛도
짜늘하기만 한데
세상살이는 점점 더 추워지지만 하고
발걸음하는 성도들도 얼마 안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쫓겨온 세월이 흘러가도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목사님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큰 교회는 점점 더 넓어져만 가고
그곳 목사님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등줄기엔 식은땀만 흐르는 듯 늘 힘없이 보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그럴까 늘 궁금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늘 서둘러 기도하고
설교하실 때에도 목청껏 소리치며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면
언제나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얼굴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늘 세월에 밟혀 지쳐 있는데
맥없이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더 쪽 빠집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고
세상 길이 너무 가파르기에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하기만 한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엔 상처만 더 깊게 파고들입니다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면 하늘을 보면서
자구만 자꾸만 궁금해져
하나님께 물고만 싶어집니다
목사님을 잘 부탁드리고만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 용혜원시인



성경삽화



◁예수님께서 열두제자를 택하심

그들이 찢어질 정도로 낡은 물고기



8월 예배담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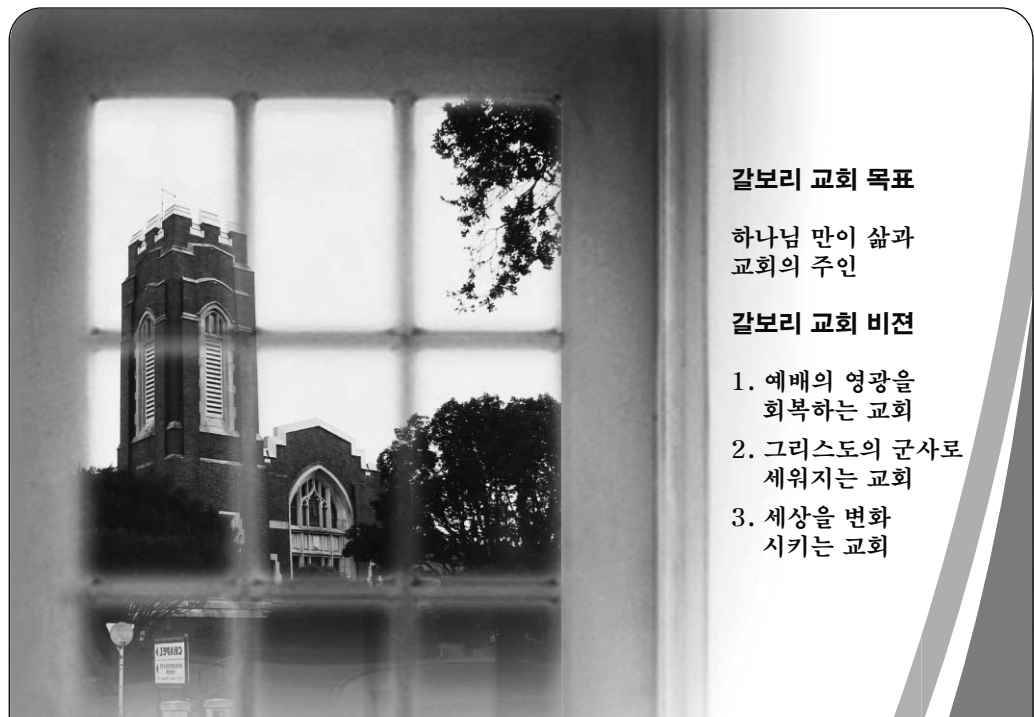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1부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1일	김영길	김순자	남영수	정희자	이수원/한상순	김반석/김광영	이기중/오지연/김재연
8일	정관영	김용석	민선희	정희자	이수원/한상순	김반석/김광영	이기중/오지연/김재연
15일	이광희	노은숙	인치혁	정희자	이수원/한상순	김반석/김광영	이기중/오지연/김재연
22일	최재학	박덕철	차영철	정희자	이수원/한상순	김반석/김광영	이기중/오지연/김재연
29일	현석호	박병민	박수현	정희자	이수원/한상순	김반석/김광영	이기중/오지연/김재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박규남,김경수,김순희,김정미,안원희,박혜숙,문일숙,원예림)
2. 중독성이 있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취미를 갖도록
3. 오克兰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며 경외하도록
4. 정쟁과 비판을 일삼는 위정자들이 겸허하게 자기 반성을 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환
부목사 : 김중환,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최재학,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협동장로 : 유승재
지휘 : 신경화
반주 : 박양규,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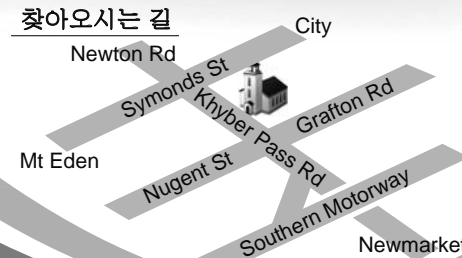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0 교회표어: (사도행전 4:11-12)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2:45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68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0년 8월 22일

주보 12권 34호

www.calvary.org.nz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의 부름	시편 131:2-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6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88, 169장	다함께
대표기도	최재학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21:3-17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태한목사
성찬식	집례자	
찬송	39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만 바라 볼지라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현 석호 장로 9월 5일: 정 덕수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67명 2부 18명 아동부 14명 유아부 17명 합계 216명

주일2부예배

오후 2시45분	청년찬양팀	다함께
찬양	박덕철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요한복음 6:22-35	인도자
설교	생명의 떡	김중환목사
찬송	주님 한분 만으로	다함께
광고	회장	
축도	김중환목사	

다음주 기도: 박병민집사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수요찬양대	다함께
찬양	최장한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3:16	인도자
특송	10구역	
설교	성경이란 어떤책인가? 김용환목사	다함께
찬송	234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경덕현집사
다음 수요일예배 기도: 박영태집사

설교핵심 요약

요한복음 21장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7.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0 교회표어: 오직 예수 오직 구원 (행 4:11-12)

① 성찬식: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② 기도회 및 반별 성경공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Duke Institute.

③ 새신자 인도자반 성경공부: 화요일 오전 11시. 교회 사무실

④ 탁구대회: 구역별 탁구 대회가 개최 됩니다.

일시: 8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99A Gillies Ave. Epsom 소재 탁구장

방법: 단식, 남여 각 한팀 복식 1팀 (반드시 남,여)

대진추첨: 수요일예배(25일) 구역별 추첨시간이 있습니다. 구역장이거나, 인도자는 꼭 참여 바람, 선수명단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⑥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성서공회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⑦ 선교현장 참여: 다음주일 오후에 마오리교회 (허영근선교사)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2010. 8. 29 주일 저녁 6:00 - 7:30 pm

장소: 헨더슨 중학교 강당(Henderson Intermediate School Hall)

주소: 70 Lincoln Road, Henderson

청년부 협력권사

8월 1일	김순자, 정이지
8월 8일	오지영, 임병숙
8월 15일	노은숙, 이기중
8월 22일	이경자, 이규임
8월 29일	김순자, 정이지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결식자 봉사

▷밀알장애자 봉사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더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의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습에 충실한 여자가 현모양처고 돈 많이 벌여오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누가 정해놓았는지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 마땅해 하고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어보면 열 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싼 옷 입고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타나는 친구 비싼 차와 풍광 좋은 별장 갖고 명할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고 응자받은 돈 갖기 바빠 내 집 마련 멀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애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어느 날 몸살감기라도 호되게 앓다보면

핏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켜온 아내, 지켜온 남편인 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 굳은 케익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 喪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돌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피시 말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